

종합소득세, 소득·세액공제로 '절세 OK'

소득세 신고 6월1일·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2000만원 미만 임대수입도 신고...종합·분리과세 중 선택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 공제...주택청약 240만원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연금을 받는 은퇴층, 임대사업자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납부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또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주어질 기간에 신고하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도 신고=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통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하니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비과세나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임대수에서 제외된다. 이때문에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해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hometax.go.kr)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리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도 각기 다르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에 달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받는 절세상품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간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까지 공제되는 신용카드에 비하면 2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현금영수증 역시 3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0만원까지 공제한다. 무주택가구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는 본인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하나·신한·우리·농협 등 총 8개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펀드·신탁·보험 등 연금저축 상품도 공제 대상이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 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초과면 13.2%다.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에 16.5%를 곱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연금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비롯해 세액공제(해지 예상액에 따라)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적용대상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업인NH안전보험 지역 가입자 역대 최대

광주·전남 8만6787명 집계 부담 줄고 혜택 늘어나 인기

고령층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지역 가입자가 올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농협생명 광주충국·전남충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기준 농(임)업인 NH안전보험 가입자는 광주 2066명·전남 8만4721명 등 8만6787명으로 집계됐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지난 2018년 11만717명(광주 2574명·전남 10만8143명), 2019년 11만4553명(광주 3075명·전남 11만1478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상품은 농업인이라면 만15세부터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나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농업경영체으로 등록했다면 농업인은 50%, 영세농업인은 7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또 일반보험과 달리 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평균연령이 높은 농업인들을 고려해 영세농업인 지원 절차가 간소화됐다.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고 지원을 받는 영세농업인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정부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을 계기로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으나 보험기간이 경과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사망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30일까지 유족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버스나 승용차 등 농기계 의 수단으로 인한 교통재해사망 특약, 여성 및 고령 농업인 대상 재해골절 특약도 도입했다.

송대범 전남총국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보험사 NH농협생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라며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게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전력데이터 활용 에너지 신서비스 찾는다

6월17일까지 제안서 접수

한국전력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신(新)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6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개인 또는 팀은 한전 아트센터에 마련된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전력데이터와 공공, 민간분야의 데이터 등을 활용해 1개월간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시상식은 오는 8월20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전과 한전KDN 등 전력그룹사,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한다.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일반인, 벤처기업과 새싹기업은 경진대회 홈페이지(contest.kepco.co.kr)에 6월17일까지 제안서를 내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이나 개인은 제공된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가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전 아트센터에 마련된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개발한다.

완성도,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사내 직원과 사외 전문위원이 함께 평가한다.

시상은 개인(학생·일반인)과 기업 2개

의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최종 선정 팀에는 총 2150만 원의 상금을 주며, 수상작의 서비스 솔루션은 에너

지마켓플레이스(EN:TER)에 등록해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원한 자리깔고 꿀잠 자세요" 21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을 찾은 한 고객이 '쿨자리 특집전'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대나무·왕골·참나무·매쉬(맷수수) 소재 침구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청소년금융교육 재개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중단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난 14일 다시 열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이날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금융교육 완

전 전이아'로,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H엔돌핀'이 교육을 맡았다.

이날 일일 은행원을 맡은 참가자들은 통장 개설과 핀테크(금융IT기술) 등 금융업무 체험하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재개된 이번 교육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인터넷진흥원 '암호모듈검증 컨설팅' 지원

6월5일까지 참가업체 모집 선정업체 5개월간 컨설팅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암호모듈검증 컨설팅'에 지원할 영세·중소업체를 오는 6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암호모듈검증(KCMVP)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공공망에서 DB암호화·통합인증(SSO)·문서 암호화(DRM)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모듈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확산 등 암호모듈검

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험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 사업을 마련했다.

컨설팅은 암호모듈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중소업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업체 규모와 암호모듈 이해도, 지원 필요성 등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업체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안전한 암호모듈 설계 및 구현 ▲암호모듈 검증기준 해석 ▲암호모듈검증 관련 문서 작성법 등 암호모듈 시험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seed.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